

전국 24절기(겨울철) 여행 미식 및 로션 선전활동 개최

— 지역의 독특한 음식문화 꾸준히 발굴해 미식으로 관광 활성화

24일, 김립성문화및관광청,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와 중국관광보사에서 주최하고 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중국 음식·만리강산 유람(寻味美好中国·品游万里山河)' 전국 24절기(겨울철) 여행 미식 및 로션 발표 선전 행사가 연길에서 열렸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겨울철 발표 활동은 '립동·소설·대설·동지·소한·대한(冬雪雪冬小大寒)'이라는 주제로 겨울철 절기의 특징을 살리고 25개 성, 시, 자치구 및 신강생산건설병탄에서 제출한 341개의 겨울철 절기 관련 여행 음식과 75개의 미식 여행 코스가 선정되어 중국의 다채롭고 독특한 겨울철 여행 음식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주정부 부주장 윤조휘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년간 우리 주는 '관광흥주' 발전전략을 견지하고 '피서휴양, 빙설관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체인을 강화하며 지역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꾸준히 발굴하여 미식으로 휴식을 풍요롭게 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힘써왔다. 또한 '미식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동북아문화관광미식주간, 훈춘크리켓축제, 룡정배추김치문화관광축제, 연길립장축제 등 다양한 미식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 음식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문화및관광청 2급 순시원 주학군은 "음식은 지역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매개체이며 사람들이 한 도시를 방문하고 그곳에 매료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김립성은 지역의 독특한 음식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음식을 맛보려



고 움직이고 음식을 맛보려고 여행한다'는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관광보사 당위 부서기이며 부주필인 배기명은 "김립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빙설지역으로서 빙설산업과 빙설관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변은 오랜 력사와 깊은 문화를 자랑하며 풍부한 관광자원과 독특한 민족음식을 품고 있어 중국 음식문화의 보물고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아름다운 중국 음식·만리강산 유람' 전국 24절기(겨울철) 관광 미식 및 로션을 영상으로 발표했다. 이어 참석

자들은 '미식으로 관광 고품질 발전 촉진'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 더 많은 여행업계 종사자들과 미식가들이 함께 노력하여 음식과 여행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새로운 여행 소비 유행을 만들어나기 위해 음식관광을 발전시킬 것을 기대했다. 한편 연변과 룡녕성 흥성시, 강소성 룡양시, 호남성 상담시 등 대표들이 각 지역의 특색 음식관광자원과 풍부한 음식관광 정보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또 '인심이 있는 곳에 머물며 연변의 맛·음미'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렸다. 세계관광도시연합회 전문가위원회 부

주임이며 문화및관광부 '14.5'계획 전문가 위원회 위원인 장휘와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대학봉, 연변조선족전문음식협회 회장 김순옥 등 전문가, 학자들이 연변의 독특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을 통해 관광명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특히 인삼산업이 연변의 고품질 성장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독특한 음식이 지역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객을 흡인하는 매력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을 진행했다.

/ 김영화기자

월청진 캠핑카 야영지 전국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발전 시범사례로

도문시 월청진의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 캠핑카 야영지가 전국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발전 시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일전 문화및관광부 판공청, 교통운수부 판공청, 국가철도국 종합사, 중국민용항공국 종합사, 국가우정국 판공실, 국가철도국 집단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제2진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발전 시범사례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전국에서 68개가 입선, 그중 연변의 도문시 월청진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 캠핑카 야영지가 포함되었다.

해당 선정 사업은 교통운수와 관광의 융합발전을 더 한층 촉진하고 사래의 시범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교통강국 건설과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 내수확대 전략에 더욱 잘 조력하여 인민들이 더욱 고품질적인 관광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올해 6월 12일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월청진 교통운수와 관광 융합 캠핑카 야영지는 도문시 월청진 결만촌에 위치해있고 G331 국도와 립접해있다. 해당 사례는 G331 변경관광대통로의 위치 우세에 의탁하고 유류 공간, 주택 등 자원을 충분히 리용하여 G331 도문 구간에서 숲선하여 조선족 특색 음식, 오락,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24시간 물, 전기 공급, 무료 주차 등 봉사를 일체화한 융합산업을 형성하여 시장의 공백을 메웠다. 해당 대상은 이미 초보적으로 규모를 형성했고 현재 주차장 구도 조정, 무인매점 건설 등 기반 봉사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봉사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한으로 자가용 관광객들의 출행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 연변조간

빙설산업, 스포츠 행사 '동풍' 타고 '열기' 상승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이래 '3억명이 넘는 사람이 빙설운동에 참여하는' 동풍을 타고 중국의 빙설산업이 기세 드높게 발전하고 있다.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빙설운동 고품질 발전으로 빙설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8가지 면, 24개 조치를 제기하고 빙설운동을 인솔로 빙설경제가 새로운 성장점이 되도록 추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빙설경제 총 규모를 1만 2,000억 원, 2030년까지 빙설경제 총 규모를 1만 5,000억 원에 도달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빙설경제 산업시사 보완

<의견>은 빙설운동 발전 지속 추동, 빙설경제 산업시사 보완, 기반시설과 부대봉사 보완, 빙설소비 촉진, 확대 등 면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국가체육총국 '14.5'전망계획 체육결핵자문 전문가이며 청화대학 교수인 왕설리는 <의견>에서 "빙설경제 산업시사"를 제기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왕설리는 "빙설경제는 빙설장비 등 제조업을 포함하는 동시에 빙설관광 등 봉사업의 융합성 경영 방식도 포함하고 또 빙설문화의 계승도 포함한다. 빙설문화, 빙설장비, 빙설관광의 전방 사업시사 발전은 빙설경제가 새로운 성장점이 되도록 추동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근년간 각지의 빙설관광 열기도 높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3—2024 빙설시즌에 중국의 빙설관광 인수는 연 3억 8,500만 명을 초과했고 올해는 연 5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전국동계운동회, 피겨스케이팅, 스키점프 등 대회는 이르기까지 일련의 빙설경기의 개최는 '대회파라 관광'하는 것이 더욱 많은 관광객의 선택으로 되게 했고 문화관광 소비가 열기를 띠는 빙설 '인기' 현상을 만들었다.

2025년 2월, 제9회 아시아동계운동회가 흑룡강성 할빈시에서 개최된다. 빙설관광으로 각광을 받는 할빈은 또 한번 빙설관광산업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2023—2024 빙설시즌에 할빈은 연 8,700만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고 1,248억 원의 관광 소득을 실현했는데 이는 전제 동기 대비 각각 300%, 500% 성장한 수준이다.

료해에 따르면 2024—2025 빙설시즌 기간 할빈은 '꿈을 찾아 아시아동계운동회로', '들끓

는 할빈', '함께 즐기는 빙설', '상합체육' 4개 주제, 148가지 경기활동을 기획하고 대회를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빙설장비 고품질 발전 실현

빙설 장비, 기제는 빙설운동의 필수품이다. <의견>은 빙설 장비, 기제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기한 동시에 빙설경제 경영주체를 육성, 장대시키고 빙설 분야에서 유명한 브랜드와 선두기업을 만들며 빙설 분야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기했다.

빙설장비 제조 분야의 승격은 중국 빙설산업 발전의 축소판이다. 최근년간 중국 기업들은 빙설장비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적극 뛰어들어 외국 브랜드의 독점 우세를 효과적으로 돌파했다. 얼마전에 소집된 2024 국제동계운동(북경)박람회에서는 국산 제설기, 스노모빌, 눈신(雪鞋) 등 각종 장비를 선보이면서 사람들이 우리 나라 빙설장비의 고품질 발전을 느끼도록 했다.

빙설소비 촉진 및 확대

일전 길림, 신강, 하북 등지의 여러 스키장들이 륝속 영업을 시작했다.

<의견>은 빙설장소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제기한 동시에 빙설소비를 촉진, 확대하고 빙설제품을 풍부히 하며 빙설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빙설보조체계를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는 '빙설+' 소비 방식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빙설소비의 정경과 형태도 부단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설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많은 스키장에서 융합성 빙설관광제품을 만들어 부동한 군체를 향한 '스키+휴가'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의 맞춤화 정도를 높이고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빙설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의견>은 또 빙설인재 대오 건설 강화, 금융 지지 강화, 빙설융자 보장 등을 포함한 빙설경제에 대한 요소 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왕설리는 "현재 우리 나라 빙설산업의 발전은 인재가 부족하고 스키장 용지 관련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의견>의 관련 언급은 이러한 난제와 부족점을 대상성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민일보

비암산온천마을풍경구 국가 3A급 관광풍경구로



일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관광풍경구 품질 등급 구분 및 평가>(GB/T17775-2023)와 <관광풍경구 품질 등급 관리방법>에 근거하고 룡정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의 추천과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의 종합평가를 거쳐 비암산온천마을풍경구가 국가 3A급 관광풍경구로 확정되었다.

비암산온천은 룡정시에 위치해있고 시내와 2키로미터 떨어져있으며 334국도와 연결되고 연길시와 22키로미터 떨어져있다. 이 풍경구는 민속풍정과 온천 체험을 일체화한 관광명승지로서 김립성 특유의 메타규산불소 온천 자원이 있다. 김립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온천호텔로서 연변에서 처음으로 휴가, 온천료양, 관광주거양로를 일체화한 종합성 온천료양지인 동시에 전국삼림건강양생기지 시범건설단위의 영예도 받았다.

해당 풍경구는 온천호텔, 실내 온천구역, 실외 온천구역, 온천민박구역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호텔방과 온천민박의 회의시설도 마련되어있다.

이외 관광객들은 현지의 조선족 특색 음식과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풍경구는 조약문화 화를 핵심으로 조선족 특색이 있는 물리치료 제품을 출시하여 독특한 건강양생 체계를 선사하고 있다.

관광객은 또 부패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휴식 장소에서 여유를 느끼며 조선족의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비암산온천마을은 비암산의 자연자원에 의거하고 조선족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온천 양생, 휴가, 민속체험, 특색민박, 현지 미식 등 기능을 일체화한 전망위, 다층차, 전천후, 사계절 경영의 온천양생휴가구이다.

/ 연변라지오텔레비존방송

두만강변 '87'거리 독특한 지역 랜드마크로 떠오른다

두만강변에는 '87'거리라는 독특한 랜드마크가 있다. 이곳은 단지 지리적 좌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화민족의 다원일체와 조화공생을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우뚝 서있는 87호 경계비로 이름을 짓게 된 이 거리는 또 '팔칠은 오십륙'이란 심오한 의미로 전국 56개 민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공동 번영하는 아름다운 전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87'거리에 들어서면 걸음마다 경이로움과 이야기로 가득차있다. "이곳저곳 해도 연변", "마음에 드는 고장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 "도문을 사랑해" 등 표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기념사진을 찍게 한다. '중화민족 문화주랑 담벽'은 56개 민족의 문화 정수를 그림과 글로 표현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여 중화문화의 풍부함과 다채로움, 심오함과 정묘함을 더 깊이 느끼게 하고 있다. '87'거리의 가장 중요한 일경인 87호 경계비에서 관광객들은 너도나도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풍부한 문화적 경관외 '87'거리에는 기념품가게, 특색음식구역과 민족복장체험구역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다양한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할빈에서 온 관광객 리너사는 "연변은 기후가 쾌적하고 인정도 따뜻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87'거리는 매 벽돌과 기와마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매개 경치와 물건마다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변을 료해하고 민속문화를 체험하는 최적의 장소일 뿐만 아

니라 중화민족 대가정의 따뜻함과 조화로우 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리너사는 이번 연변 여행을 수확이 크며 기회가 되면 가족과 함께 다시 연변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도문발표



▲ '87'거리의 가장 중요한 일경인 87호 경계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는 관광객들